

휘발유 ㄹ 당 57원 ↓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

7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57원 내려가고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

단보도에선 최소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7월 1일을 기해 유류세 인하 폭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커진다. 기존 30%보다 인 하 폭이 7%포인트 커지는 것이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L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 도는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올라간다.

코로나19 폐하로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공식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면으로만 처리되던 청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통지할 수 있게 된다. 청원은 법령 제·개정

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된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7월을 기해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단가도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올라간다.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연합뉴스



한국광기술원은 최근 ‘제9회 광융합 제품디자인 및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총 18개팀을 선정해 상장을 전달했다. /광기술원 제공

광기술원, 광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52개 접수…최우수상 등 18팀

특허출원·마케팅 상용화 지원

한국광기술원은 ‘제9회 광융합 제품디자인 및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발표했다.

공모 결과 총 52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 장려상 10팀으로 총 18팀을 선정했다.

수상 작품에는 한국광기술원 연구원 매칭을 통해 특허출원,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광융합 사업과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IoT 센서와 식물 생장 LED, 비타민D 생성 LED 활용 한 무선충전기’, LED/OLED 부문에서는 ‘Eternal light’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IoT 센서와 식물 생장 LED, 비타민D 생성 LED 활용한 무선충전기’는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조명 및 무드등으로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화 아이디어다.

‘Eternal light’은 동심원 형태의 빛 애니메이션과 어울리는 3D 패턴을 조합해 공간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LED 조명 제품 디자인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그동안 총 671여 개 작품을 응모 받아 96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한국광기술원의 연구 개발과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한국광기술원 신용진 원장은 “올해 공모전 수상작들이 아이디어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현실 외면 최저임금 인상” 경제계 비판 잇따라

“고용 충격 불가피…동의 어렵다”

3중고 속 부작용 완화 강구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제계와 노동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

안을 표결에 부쳐 자정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중재안에 반발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영

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또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 불가피”라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중기청,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기업 모집

시 22개·도 67개사 구축·고도화

최대 2억원 기업별 맞춤화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고는 수요기업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이

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모집이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먼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부문은 광주 22개사, 전남 67개사를 포함한 전국 850개사를 선정해 총 70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단계 지원금 5,000만원, 고도화 1은 2억원으로 차등화 지원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부문은 4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4억원씩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미래형 스마트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을 넘어 업체당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K-스마트등대공장’은 다양한 업종별로 고도화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자제품 등 8개 주력업종 2개사, 식료품·의약품 등 17개 기타업종 2개사로 나눠 선정한다.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올여름 전력 최대수요 시기는 ‘8월 둘째주’

정부, 기업에 휴가분산 요청

정부가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예상하면서 산업계에 이 시기를 전후해 직원들이 휴가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여름 전력 수급이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로 예비지원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가정과 상업시설의 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전망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최

대 전력 수요가 91.7~95.7GW(기가와트)에 달해 지난해(91.1GW·7월 27일 기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일 전력 공급능력의 경우 원전 가동이 증가했으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영향으로 100.9GW 수준을 보여 지난해(100.7GW)와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비력은 최저 5.2GW로 최근 여름철 실적 대비 가장 낮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9.2GW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수요 관리를 위해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여부 및 조정 부분 소등 등 에너지 사용 실태도 점검하고, 전력 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운휴 등 절전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 헌혈캠페인 진행

17년간 이어온 대표 CSR 활동

헌혈버스 통한 참여·헌혈증 기부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원)은 부족한 국내 혈액 수급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본사와 국내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2 대우건설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은 을지로 본사 앞 헌혈버스를 통해 참여했으며, 헌혈버스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은 헌혈증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대우건설의 헌혈 캠페인은 2006년부터 17년째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앞

으로도 지속적인 생명 나눔 활동을 전개해왔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우건설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희망의 집 고치기’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헌 옷 나눔, 장학금 기부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사회공헌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헌혈 참여자가 감소한 가운데 회사차원에서 헌혈 문화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며 “헌혈 캠페인이 희망의 집 고치기 활동과 더불어 대우건설의 대표 CSR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대우건설은 부족한 국내 혈액 수급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본사와 국내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헌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전남농협, 쌀 100만포 팔기

쌀값 하락 속 소비촉진 운동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최근 무안군 남악리 농협하나로마트 남악점 광장에서 관내 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농협 임직원 쌀 100만포 팔기 운동’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농협은 최근 쌀 소비 감소,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남농협은 농협 임직원 주도의 쌀 소

비촉진 운동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회, NH농협은행, 계열사, 지역농협 등 각 사무소별 여건에 맞게 소비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남쌀 판매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 임직원이 1인당 쌀 100포 이상을 팔아주는 것이 목표다. 임직원의 쌀 판매 붐 조성을 위해 판매 우수 직원 및 사무소에는 시상을 실시하며, 쌀값 안정을 위해 8월말까지 추진한다.

또한, 농협 RPC와 은행, 농·축협 고객 사은품을 제작해 영업점 내 판매 창구에서 고객 선물로 전남쌀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우성진 기자